

■ '광주 4위·전남 12위' 소년체전이 남긴 것

광주 '뿌린만큼 거뒀다' 대선전
전남 선수난 불구 도약 기회로

광주의 '꿈나무 체육'이 지속적인 투자와 체육지도자들의 정성어린 조련 결과 양궁, 체조, 역도등의 선전으로 종합4위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전남은 기대했던 양궁과 사이클, 복싱, 레슬링과 야구등 기록·단체종목의 부진으로 지난해와 같은 12위 제자리 같음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 체조·양궁·역도서 실력 발휘
전남, 기록 종목 꾸준한 투자 필요

이번 제36회 김천 전국소년체전 성적을 볼 때 광주체육은 체조, 양궁, 역도등 다관왕 획득종목과 정책종목 꿈나무 선수(130명)의 지속적 육성이 힘을 발휘했다.

또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6~28일까지 경기장을 누비며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광주시교육청과 체육회의 현장지원이 성적향상에 한 몫 토했다.

특히 광주의 이번 성적은 지난해 거둔 종합3위 보다는 한 계단 하락했지만 경기, 서울, 개최지 경북에 이어 4위를 기록해 확실히 상위권에 자리매김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은 열악한 체육기반시설과 우수선수 확보난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남은 지난해 대비 총 메달수에서 14개를 더 획득하는 등 전반적인 경

기력 향상을 보여 내년 광주소년체전에서 도약의 기회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광주는 '금 나을 곳에 제대로 투자'한 '선택'과 '집중'이 돋보였다.

또한 광주는 매년 1~2위를 다투는 서울이 선전한데다 3위를 기록한 경북의 선전으로 인해 중위권 시·도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순발력을 보여며 종합4위에 올랐다.

양궁 남초와 여초에서 각각 김현민(삼정초)과 서우영(두암초)이 3관왕에 올랐으며 체조 배가람·양학선(광주체육중), 역도 남중 전대운(정광중)도 각각 3관왕에 오른 등 6명의 다관왕 획득자를 배출했다.

또한 2위 서울의 선전과 3위 개최지 경북의 도약으로 인해 중위권과의 다툼에서 숨겨진 레이스를 펼쳐면서 다관왕의 위치에 힘입어 상위권에 포함할 수 있었

다. 하지만 금메달이 유력했던 축구, 야구, 배구등의 단체종목 부진과 기록종목인 육상의 부진은 앞으로 상위권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남= 당초 기대했던 10위의 목표달성 실패는 전통강세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펜싱, 하키등 단체종목과 기록경기의 부진에 원인이 있다.

기록경기에서 육상과 역도, 사격을 제외한 체조, 수영, 사이클, 볼링등에서 금메달이 1개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선전을 펼쳤던 단체종목에서도 정구 남·여 초등학교의 금메달외에는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등 대개의 종목이 고개를 숙였다.

전통의 강세종목인 투기종목에서도 태권도만이 금메달 3개를 따내 제 몫을 했을 뿐 복싱과 유도가 금메달 1개에 그쳤고, 씨름과 레슬링은 노골드로 성적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

이에따라 전남이 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1인 다메달 획득 기록종목과 전통 강세종목의 우수선수 발굴에 따른 '집중'과 '효율'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성적을 거둔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 팀 육성 학교의 동기를 유발하는 '차별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내일 울산 개막

제7회 '2007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울산광역시 일원 57개 경기장에서 6월1~3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대회에는 43개 시·도 생활체육동호인 선수단과 시민들 6만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지역·계층간 우의와 친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는 정식 29개, 대학동아리 2개, 시범 7개, 장애인 3개, 전시 2개등 모두 43개

종목에 약 2만3천여명의 동호인 선수단, 4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오주)는 장애인 종목 3종목(탁구, 테니스, 휠체어마라톤), 민속종목(씨름, 태권)을 포함 26개 종목에 선수(410명), 임직원(38명), 장애인(11명)등 선수단 459명이 참가한다.

광주시 선수단은 고추마을 재연해 고를 탄 빛돌이가 선두로 입장하며 뒤이어 선수

단이 입장할 때 대형에드벌튼을 띄워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88회 광주전국체육대회와 광주김치축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주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승부나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전국 생활체육동호인과 화합과 우의를 다지겠다"며 "오는 광주전국체육대전을 홍보하고 1등 광주 1등시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선수단은 오는 6월 1일 오전 광주 상무지구 전천후게이트빌 구장에서 결단식을 갖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렌지 군단' 입국...경계대상 1·2호 오는 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친선경기를 벌일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의 디르크 카윗(리버풀·왼쪽)과 클라스 안 훈텔라르(아약스)가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흉만 거인증...당장 치료 받아야"

경희대 의대 김성운 교수 주장

'테크노 콜라' 최흉만(26·218cm)이 속칭 '거인증'이라 불리는 '말단 비대증'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내분비내과 김성운 교수는 30일 "최흉만의 경우 키가 2m 이상 자랐고 얼굴 형태를 보면 틀림없는 말단 비대증"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말단 비대증이란 뇌하수체에서 생긴 종양 때문에 성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신체 말단 부위인 얼굴과 손발 등의 성장이 계속 멈추지 않는 희귀질환이

다. 김성운 교수는 "예전에 최흉만을 직접 만나 정밀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가 수락하지 않았다"면서 "종양이 커지면 머리가 아프다. 또 심장과 손발은 계속 자란다. 나중에는 대장에 압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최흉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치료를 받게 된다면 격투기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서 정밀 검사를 회피한 것 같다"면서 "생명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인증' 논란은 최흉만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CSAC)가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메디컬 테스트 결과가 발단이 됐다.

韓·北·中 유소년축구
내일 강진에서 열린다

북한과 중국 유소년 축구팀 초청 친선경기가 강진에서 펼쳐진다.

한국 유소년(15세 이하) 대표팀을 비롯해 북한, 중국, 강진중 등 4개팀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7차례 친선 경기를 갖는다.

평가전 참가 선수와 임원은 북한 대표팀 34명을 비롯 중국 운남성 대표팀 24명, 한국 대표팀 22명, 강진중팀 20명 등 100여명이다.

이번 친선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군이 주관한다.

북한팀의 연습경기 등은 다음달 2일 첫 공개되며 북한과 강진중 간 개막전은 4일, 한국과 북한 대표팀 경기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성남 김두현 '최고선수'

K-리그 선수 100인 설문



프로축구 성남 일화의 중원 사령관 김두현(25·사관)이 동료 K-리그 거물에게서 최고 선수로 뽑혔다.

축구 전문가 '포포투' 한국판은 30

일 강간조 특집으로 'K-리그 선수 100인에 게 물었다'라는 제목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선수 한 명당 자신이 꼽는 베스트 선수 7명을 투표하도록 해 순위별로 7~1점씩 부여한 결과 김두현이 365점을 얻어 같은 팀의 브라질 용병 모파(265점)를 제치고 최고 선수로 선정됐다. 3위는 이천수(울산)로 최고의 오른발 프리킥커로도 뽑혔다.



- 31일(목)
-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월드컵(13:50-MBC)
- 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나 오픈 1R(13:50-KBC)
-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14:10-KBS 1)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소프트뱅크)(17:50-SBS스포츠)
- 프로야구(LG-삼성)(17:40-KBSN Sports), (KIA-현대)(18:30-MBC ESPN)
6월1일(금)
- PGA투어 더 메모리얼 토너먼트 1R(04:00-SBS스포츠)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6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웰빙시대의 뉴-리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개강 6월 2일(토)
(토, 일 주말반)
A+ 현대고시학원
(광주동부경찰서 옆) 062)236-2467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7.9급 공무원 대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개강
6월 1주(야)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BUCK SH SYSTEM ORDER MADE
전국대리점 정찰기격입니다
BUCKISH 유동점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전 화: 062-514-1741
팩 스: 062-514-1745 휴대: 011-9603-1741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올해부터 5년간 5만명증원
이론반 (2개월완성)
실용반 (2개월완성)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6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홀/찍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